무주 · 진안 · 장수지역에 특수학교 신설

전북도교육청, 동부권 특수학교 설립 계획 중앙투자심사 통과… 장수 원촌초 폐교부지 활용

동부권 지역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전북도교육청은 무주·진안·장수 지역에 설립 예정인 동부권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 원촌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동부권(무주·진안·장수 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지난 26일 교육부 2022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장수 계북면에 위치한 원촌초 폐교부지(1만2,171㎡)를 활용해 중학교 과정 4학급, 고등학교 과정 4학급, 전공과 과정 2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도내에는 10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나 대부분 전주를 중심으로 중·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따라서 통합교육이 어려운 동부권 지역의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주, 남원 등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7월 장수 원촌초등학교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지역주민들은 학교 설립으로 침체된 지역 활성화와 체육시설 공동 이용 등을 기대하며 98.1%가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했다. 장수군과 군의회도 특수학교 설립·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했다.

동부권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는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업 지원 및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민반대로 특수학교 신설을 시도조차 못하게 되면서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부권 특수학교가 2025년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설립 계획서도 함께 의뢰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장은성 기자

성안나 교육재단, 임시이사 선임 보류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의 임시이사 선임이 보류됐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단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우려해 성안나 재단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학교법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5일 인용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1월 12일 학교시설?설비기준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성안나 재단의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은 전북교육감이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 진입로 문제를 이유로 학교법인 임원승인을 취소했다며,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성안나 재단의 임시이사 선임이 보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행정심판을 철저히 준비해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조치를 시행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새학기 '대면수업'으로

전북대, "학생 학습 결손 예방 전 교과목 대면수업 기본 원칙"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오는 1학기 대면수업 원칙을 밝혔다. 지난해 2학기 59.5%를 대면수업으로 시행했던 전북대가 학생들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과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1학기 수업운영을 전 교과목 대면수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원-학생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만 비대면수업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다만, 대면수업에 다른 방역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체육관이나 무용실 등 좌석 없는 강의실은 면적 4㎡ 당 1명씩 앉기, 그리고 강의실 내 방역물품 비치 및 충분한 환기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일부 비대면강의를 허용하는 경우는 교과목 특성과 강의실 사정상 대학장이 승인한 교과목이나 수강인원 80명을 초과하는 대단위 강의에 한한다. 비대면수업은 20% 이내로 승인을 권장하고, 50% 이상은 실시간 화상강의나 대면·비대면 동시 수업 등을 통해 강의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 역시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같은 대면수업 실시 방안에 따라 전북대는 강의실 방역에 따른 인력 배치와 칸막이 예산 확보를 통한 설치 등 방역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과 사회·정서적 교류 축소 문제 등을 해소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면수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활 일상을 되찾아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돌봄 걱정 없게 국가는 시스템을, 교육청은 정책 전환을"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돌봄시스템 일원화' 주장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학부모가 맘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일원화 된 돌봄시스템 운영을 주장했다.

서 전 총장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의 국가책임제, 돌봄전담사 국가 채용, 저녁 7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운영 등을 담은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돌봄이 불안정하면 당장 부모의 일상이 흔들린다" 면서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맞벌이 부모의 경우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돌봄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돌봄시스템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있고, 또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과 지침이 다른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상과 시간, 내용이 중복돼 운용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학부모와 아이들, 학교와 기관, 관계자들 간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 전 총장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되며, 더 늦기 전에 안정적인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원화 된 돌봄시스템을 만들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국과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는 돌봄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듯이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 만족도가 높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제화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서 전 총장은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전담사들의 국가 채용과 함께 전일제 돌봄 운영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돌봄전담사들의 신분이 안정되고 돌봄 시간이 연장되면,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파업에 따른 파행 운영 해소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러한 국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돌봄에 대해"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여건을 고려한 돌봄연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방과후 학교·돌봄 통합센터'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나아가 지역 내 유휴 교육공간을 활용한 마을돌봄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추가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 전 총장은 "돌봄은 국가와 지역, 학교가 함께 나서야 한다" 며 "국가는 돌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고, 교육청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을 펼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020년 현재 422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학급 790개실에서 1만5,5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맞벌이 가정 학생이 1만624명(69.1%)으로 가장 많고, 저소득층 1,772명(11.5%), 한부모 가정 257명(1.7%), 기타 2,717명(17.7%) 등이다. /장은성 기자

"권역별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필요"

황호진 전 부교육감 '우주로1216'서 정책간담회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위치한 청소년 전용공간 '우주로1216'를 찾아 제25차 교육현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우주로1216과 같은 청소년 전용공간은 청소년들이 놀 권리, 쉴 권리를 누리는 유일한 곳으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며, 전북 권역별 청소년 전용공간의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전용공간의 확충 실현방안으로 동 공간을 권역별 학교복합시설에 두겠다"고 말했다.

생활SOC개념의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의 운동장이나 남은 건물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교육청과 지자단체가 함께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난 12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미래교육의 방향은 자기주도성과 문제해결능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며 "청소년전용공간은 또래 아이들이 함께 놀이, 소통, 창작, 학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스스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매우 의미있는 공간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로1216'은 지난 2019년 개관한 전주시 트윈세대(12세~16세)를 위한 전용공간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천소정 대학원생 '젊은 연구자상' 대상

전북대학교 BK21 FOUR 글로컬 자원순환환경교육연구단 천소정 대학원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 석사과정·지도교수 김현우)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서 젊은연구자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폐기물에 관한 학문 및 처리응용 분야에 관한 이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학술대회다.

이 학술대회에서 천 대학원생은 가축분뇨 내 잔류하는 항생제가 혐기성 소화 시 혐기성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천소정 대학원생은 "앞으로도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융복합 첨단소재 빅데이터 경진대회 '두각'

우석대학교는 '제2회 융복합 첨단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경진대회'에 출전, 도지사상과 전주시장상 등을 휩쓸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사)한국탄소산업진흥협회 주최로 전북지역 5개 대학에서 13개 팀이 참여해 '탄소 융복합 방호시설 제품 및 기술'과 '탄소 융복합 자동차' 등에 대한 보고서와 영상 발표가 이어졌다.

시상식은 27일 전북대에서 열렸으며, 이날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송주영·형민혁·강민후·윤성빈(3년) 학생이 '겨울철 소방설비 방지대책'을 주제로 전북도지사상을 받았다.

또 김정호·김연경·박유진·박동수(3년) 학생이 전주시장상을, 김예은·안승현(3년)·김예지(2년) 학생이 전주시의회의장상을, 하태현 지도교수는 국회의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하태현 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맘껏 발산하고,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탄소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에 기여하는 대학을 목표로"

전주비전대 정상모 총장 취임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27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제16대 정상모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미만의 내·외빈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됐다.

학교법인 신동아 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차종순 목사, JTV 한명규 사장과, 전주비전대 총동창회 장은수 회장이 참석했다. 신동아학원의 홍정길 이사장, 전주 덕진 병, 김성주 국회의원,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축사영상으로 취임 축하를 대신했다.

신임 정상모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비전대는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지역과 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구성원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가진 대학,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대학을 목표로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상모 총장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토목구조공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14년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1995년 한동대학교 설립 당시부터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로 25년간 근무했다. 또 한동대학교 재직 동안 학생처장, 교무처장, 학사부총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

도교육청, 학생자치 예산 · 편성권 보장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권을 보장한다. 학생자치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경상운영비 제외)의 1% 이상을 의무 편성하고, 학생회가 학생회 선거·공약 이행·체육대회·학생의 날 등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에 자율권을 부여한다. 특히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주체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를 지난해 6개교에서 올해 20개교로 확대한다.

학생자치 예산은 대의원회의 심의 후, 학교 행정실에 예산을 신청하면 학생회 대표 통장으로 지급되고, 예산 결산 역시 대의원회 심의를 받아 정산하면 된다.

또한 초·중 10시간, 고등 17시간 이상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공간과 연수 지원도 계속된다. 올해 초·중·고 63개교를 선정해 학생회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교당 1,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교당 1,000만 원에 비해 500만 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심사를 거쳐 공간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의지, 학생회 활동 지원 의지, 학생자치 시수, 예산 확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를 우선 선발한다.

이와 함께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자치활동 연수, 학생 인권 방학 특강, 지역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생자치 토론회 등 학생자치 활동과 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생회 선거권와 피선거권 보장도 강화한다. 지난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회 선거권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교 61%, 중학교 21.4%, 고등학교 14.3%가 일부 학년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 모두가 학생회 선거권·피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간·공간·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학생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 시상식 개최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가 주최·주관하는 '제3회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 시상식이 지난 26일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태현 군산상고 교감, 김신철 서수초 교장, 조은성 만경여고 교사, 윤일호 진안장승초 교사, 유경아 군산제일중 교사, 양성호 임실지사초 교사, 곽효준 전주동초 교사, 차봉준 남원용성중 교육복지사 등 8명이 수상했다.

두재균 위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도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며, "이 상을 통해 교직원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과 학부모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 공동체 의식을 돈독하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 위원회는 두재균 위원장, 이강선·신윤호 공동집행위원장 등 20여 명의 시민공동체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